

“우리는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질수 있다”

김창준 저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한국 준비된 시나리오 없어 대책 필요

전후후한 미국 정치의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준비된 시나리오가 없다”고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책이 주목받고 있다.

9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에 유력시되면서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연방의원 3선을 지낸 한국계 김창준 의원의 예언같은 발언이 화제다. 김 의원은 1990년 캘리포니아 주 시의원 당선 후 2년 후 시장 그 이후로 세 차례 연방하원의원을 보낸 아시아계 최초의 공화당 의원이자, 그가 지난 9월 출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는 국제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쓴소리와 함께 서툰 발 같은 조언이 담겨있다.

해성같이 떠오른 화제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국제 사회에 대한 대응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진보의 시각

에서 미국의 정치 사회를 분석한 논객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예상보다 높게 잡혀지고 있는 지금, 공화당 집권 체제의 새로운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방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선 도널드 트럼프. 그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잘 나가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에 불과했다.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을 문제 삼으며 간혹 정치권에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아웃사이더를 넘어 이단아로 불렸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하고 '막말의 대명사'라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경쟁자들을 하나씩 물리치자, 언론과 세간의 관심은 그제사야 이른바 '트럼프 돌풍'에 집중됐다.

그러나 관심은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 등 막말이나 그의 기이한 행동에 맞춰졌다. 그 근간에는 '저러다 말했지'라는 편견도 숨어 있었다.

김창준 의원은 '미 주류 언론들마저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데 트럼프 돌풍을 따라가기에 급한데, 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다. 다들 트럼프의 막말과 그의 기이한 행동 등 겉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현상'을 그저 기습거리로만 치부하는 국내 상황을 개탄하며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책은 그가 직접 경험한 미국 사회와 미국 정치, 의회와 정책 결정 방향, 시스템 등을 토대로 미 대선 결과가 세계 정치 사회의 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도 전망한다. 또한 트럼프 현상, 미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이 국제 정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진단하면서, 새로운 판에서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는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돌풍을 불러온 미국의 변화된 정치 상황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리온북 1만 3800원 /뉴스

트럼프 돌풍 이후의 세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는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 리온북, 1만3800원



이상처럼 떠나가는 계절의 아쉬움 담아 전주서 사랑받는 아티스트 '이상한계절'

“'이상한계절'이 전주에서 음악 활동하는 것을 두고 '여기서 활동 하다가 서울로 뜨겠다' 하는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시선이 오히려 힘을 빼지게 합니다. 전주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어요.”

환절기의 특별한 느낌을 담은 '이상한계절' (보컬 김은총/ 기타 박경재)은 2013년 의기투합했다. 이상한계절은 이상을 향한 계절의 졸업발로 이상처럼 떠나가는 계절의 아쉬움과 돌아오는 계절에 대한 기대를 담아 팀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편안하고 친숙한 아날로그적 소리를 추구하면서도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와 기획을 통해 지역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4년 발매한 첫 EP(미니앨범) '봄'을 시작으로 TvN '아홉수소녀', SBS '룸메이트' 등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2015년에는 디지털 싱글 '키스하지 말걸', 빈센트 연가를 출시했다.

최근 '그대로도 괜찮아', '와외요 달빛'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한계절이 오는 11~12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스텔라'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술단체력을 품고 있는 아티스트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공연의 주제는 언플러그드(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악)에 새로움을 더해보고자 언플러그드 플러스로 정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활용한 무대와 조명장비, 기타와 목소리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음악 콘셉트로 관객과 만난다. 김은총·박경재는 "이상한계절의 첫 시즌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다"며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무대"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백일장 시상식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제4회 전북여성백일장'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심사 결과 산문·문운장에는 정순덕(67) '쓸쓸한 달빛'과 김유진(27) '네칼초파리 수집가'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외에도 각 부문 차상과 차하, 도내 이주여성들을 포함해 총 13명의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산문과 문운 장원 각 100만원 차상과 차하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당선자에게는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들의 모임인 글벗 동인 활동의 자격이 주어진다.

백일장 심사위원 박형준 교수는 "추억을 렌즈로 하여 과거와 현실을 잇는 시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며 "주제의식과 진실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밝혔다.

당선자의 작품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교육사업팀(063)254-3813~4. /정해은 기자



농산물도 아름답게 'FARM 디자인포럼' 개최

완주군 심례문화예술촌 디자인뮤지엄에서 2016 FARM 디자인 포럼이 9일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역 농가 디자인관련 교수 및 학생 그리고 한국디자인협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FARM을 주제로 국민대학교 정도성 교수(한국산업디자인협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나건, 홍정표, 김현선 교수 등이 초청연사로 나서 판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쳤다.

군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FARM 문화를 구축하여 농촌 및 농산물 관련 디자인 개선과 디자인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고, 농촌의 선진화 및 농촌경제총량(GDP)을 높일

방침이다.

디자인 뮤지엄 김태호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완주군이 선점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잘 융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판 문화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디자인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농산품과 관련된 모든 디자인을 총칭하는 용어로, 농산물 생산을 돕는 각종 아이디어 상품, 농산품의 보관 및 보호를 위한 디자인 관련 패키지, 농산물 생산을 돕는 Guard 디자인 및 구조물 디자인, 아생품물 및 조류 침입 방어용 디자인, 농산물 환경 및 시스템 디자인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심례문화예술촌에 디자인 뮤지엄은 한국 산업디자인협회회가 개최하는 국제디자인

셰익스피어, 일상 생활에 상상을 더하다

창작극회, 셰익스피어 앤해서웨이 11~27일 창작소극장서 정기 공연

창작극회는 151호 정기공연으로 '셰익스피어 & 해서웨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세계문학의 거장인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작품은 셰익스피어에 보내는 무한한 찬사와 경의를 담고 있다.

공연은 셰익스피어에 대해 평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상을 더해 제작됐다.

이러면 평범한 가정이자 아버지로서의 셰익스피어는 어떨까, 내지 부부애는 어떨까 라는 궁금증에 착안해 인간적인 셰익스피어를 만나보고자 했다.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사망하기 몇 년 전, 런던에서 고향 스트랫퍼드로 돌아오고 난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

공연은 셰익스피어와 그의 부인 해서웨이 두 사람의 대화형식으로 전개되며 그들의 회상이나 생각 장면은 필요에 따라 다른 배우들에 의해 현장감있게 재현된다.

공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들 중에서 차용 및 변용했다.

작품은 극작 김정수를 비롯해 연출 류



이번 공연은 세계문학의 거장인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작품은 셰익스피어에 보내는 무한한 찬사와 경의를 담고 있다.

경호, 기획 박광천·하형래, 무대 서명 무대연구소, 조명 한상희, 음악 박규현, 출연 이부열·정경림·박종원·김찬미·김찬송·허연화·강정호·정광익이 각각 맡았다.

공연은 11월~27일 창작소극장 평일 7시 30분, 주말 3시. /정해은 기자

<p>▷쥐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길신이 따르니 민사가 형통하다. 60년생: 일의 능률이 오르고 타인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학행이 따르니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만족하라. 84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다.</p>	<p>▷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운이 따르니 과욕을 금물 61년생: 이상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운이다.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큰것을 탐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것. 85년생: 다른 사람과의 구설수와 시비수가 예상되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큰 움직임은 불리하니 지중하고 다음으로 미루라. 62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 74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라.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속을 보이지 말라.</p>	<p>▷토끼띠 51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수가 따르는 운. 63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금전 거래나 투기, 투자는 삼가라. 75년생: 타인과의 시비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니 지출에 관려하여 미리 계획.</p>
<p>▷용띠 52년생: 짐이 늘지만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말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니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혼자는 부부불화에 주의. 89년생: 권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p>	<p>▷말띠 54년생: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때다. 66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줘라. 78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잘 해결되는 운이다. 90년생: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마음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p>	<p>▷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대립하지 말고 피하라.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헛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68년생: 바쁘지만 하고 바쁜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렵다. 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조심하라.</p>	<p>▷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69년생: 헛사람의 덕이 충만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p>	<p>▷개띠 48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60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된다. 72년생: 과도한 의무를 앞세워 독단행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4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문서에 길성이 따르니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때이다. 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때.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지 큰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p>